



오륙도축제 10월10~12일 열린다

백운포체육공원. 평화공원 등서... 국제관함식과 연계 볼거리 '풍성'



손민한·김원호 오륙도축제 홍보대사 남구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오륙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08년 오륙도축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남구 출신의 롯데프로야구 손민한 투수와 개그맨 김원호씨에게 홍보대사위촉장을 전달했다.

신세대 트로트가수 박현빈 등 출연

제12회 오륙도축제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예년보다 훨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백운포체육공원과 평화공원 등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특히 10월5일부터 옛새간 건국60주년 기념 해군축제 행사와 연계해 예년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가 많아졌다.

남구청이 주최하고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일정별 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제 첫째날인 10일 오전 9시30분 백운포체육공원에서는 축제의 성공을 비는 기원제가 열리며 이어 장애인 체육대회가 시작된다.

오후 5시30분부터 50분동안 같은 장소에서 해군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가 선을 땀며 이어 식전 축하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저녁 7시에 개막식 행사가 열리며

경기를 통한 화합의 장이 될 구민체육대회가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유익하고 알찬 부대 행사도 마련돼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체험행사로 해군함정 승선과 건강체험 박람회, 전통차 나눔터, 어린이 이키드존, 칼라클레이 체험, 곤충생태전시 체험 등 15개 단위 행사가 준비돼 있다. 참여행사로 는 남구 변천 사진전과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가을 시화전, 아시아공동체학교 홍보부스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주무대를 기존의 평화공원에서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옮겨 열린다.

여기에는 평화공원에 최근 나무를 많이 심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기에 장소가 비좁고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해 소음 발생 민원이 있었으며 제한 UN기념공원관리처에서 엄속한 UN기념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 607-4061~4

■ 축제일정

구분	10. 10(금)		
	행사명	시간	행사개요
본행사	축제성공 기원제 (백운포체육공원)	09:30~10:00	기원제→음복→기념촬영
	장애인 체육대회 (백운포체육공원)	11:00~15:00	장애·비장애인의 어울림한마당
	해군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백운포체육공원)	17:30~18:20	-군악대-의정대-각종공연
	식전 축하공연	18:20~19:00	-합창단공연-무용단공연-풍물패공연
	개막식 (백운포체육공원)	19:00~19:30	-오프닝 영상-영상 메시지-개막선언
	개막 축하공연 (백운포체육공원)	19:30~21:30	-모듬북공연-발라드-영양통일예수단-페스티벌-초청가수공연
	오륙도(등대)해상 불꽃쇼	21:30~21:40	오륙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쇼
분행사	10. 11(토)		
	행사명	시간	행사개요
	동화구연대회 (구창대강단)	10:00~12:00	초등부1,2,3학년, 유치부동화구연
	백일장, 사생대회 (평화공원)	10:00~13:00	관내 학생 및 일반인대상장작심려출제
	오륙도민속경연대회 (평화공원)	10:00~13:00	풍물패, 사물놀이경연한마당
	남구문화원강좌체험 (평화공원)	10:00~13:00	남구문화원 운영프로그램 소개 및 체험공간
	오륙도주민자치경연대회 (백운포)	10:30~12:30	주민자치센터수강생축제 경연
	남구 특별활동동우학교 공연 (백운포)	12:30~14:00	-악기연주-풍물공연 등
	오륙도사랑걷기대회 (구창대강단)	14:00~17:00	환절기실감→백운포 체육공원
	전통극한마당-2008춘향전 (구창대강단)	16:00~18:00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
부대행사	10. 12(일)		
	행사명	시간	행사개요
	구민체육대회 (백운포)	11:00~16:00	구민화합아울림한마당
	체험 행사		
	•해군함정 승선 체험	•건강체험 박람회	•남구 변천 사진전
	•오륙도 야생화 전시, 화반만들기 체험	•전통차 나눔터	•남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10/8~10/13)
	•전통차 나눔터	•전통민속 놀이 체험마당	•해군 바다사진전
	•연 날리기 및 창작연 시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복지 박람회
	•어린이 키드존(술사랑 나눠주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오륙도도형 등(燈) 만들기 체험	•세계 민속 공예품 전시
	•칼라클레이 체험	•토틀이리 공예체험	•가을 시화전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곤충생태전시 체험	•평생학습 참여마당 (대형 홍보부스)
	•스포츠 데이광요법 무료체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체험관	•먹거리 풍물장터
			(관내 음식점 공동 참여부스 마련)
			•자원봉사 홍보부스
			•아시아공동체학교 홍보부스
			•노인, 장애인 센터

부산의 10월은 축제의 도가니

세계 군함 부산 앞바다에 모인다

해군, 건국·건군 6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 개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대장 정 욱근)은 건국·건군 60주년을 맞아 10.5~10일까지 옛새간 부산에서 미국 등 국내·외의 합정 50여 척과 항공기 30여 대가 참가하는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연다.

관함식은 지난 98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해군이 우리나라의 건국·건군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발전된 우리의 해군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부산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13개국 합정 20여 척이 참가한다. 특히

한국 해군은 지난해 진수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대형 수송함 독도함 등 최신에 합정 30여 척도 함께 참가해 세계 각국의 합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행사 첫째날인 10월5일과 6일에는 30여 개국 대표 인사들과 20여 척의 외국 합정이 부산으로 입항, 일 반인간에 공개된다.

10월7일에는 관함식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해상 사열식과 대함·대공 화력 시범 등이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해상에서 펼쳐진다.

이밖에도 해양방산 전시회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바다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 부산국제영화제 (PIFF)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10.2~10일까지 해운대와 남포동 일원에서 열린다. 60개 국 315편을 상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카자흐스탄의 유망주 루스텔 압드라제프 감독의 '스탈린의 선물'이, 폐막작은 유종찬 감독의 신작 '나는 행복합니다'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영화제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참석한다. 게스트로는 왕자웨이(홍콩), 장위안(중국), 에릭 쿠(싱가포르), 고레에다 히로카즈(일본), 아구치 시노부(일본), 아우레이우스 솔리토(필리핀), 논지 니미부트르(태국), 파올로 타비아니(이탈리아),

클레르 르니(프랑스) 등 감독과 우에노 주리(일본), 임희희(대한), 아론 유(미국), 리사오우(중국), 마리아 디누스쿠(루마니아) 등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영관은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상영장과 해운대 메가박스, 프리아스 시네마, 롯데시네마와 남포동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등 모두 6곳이다.

■ 제4회 부산 불꽃 축제



제4회 부산 불꽃 축제가 내달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열린다. 17일 전야제 행사는 오후 7시30분부터 1,2부로 나눠 치러진다. 1부에는 스토리텔링 불꽃쇼가 2부에는 해외초청팀 불꽃쇼가 이어

진다.

18일에 열리는 본행사는 오후3시부터 코스프레 퍼레이드, 응원단, 열린음악회 등의 식전행사와 최첨단 멀티불꽃쇼 - 최신작 영화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불꽃축제는 약 8만5천여발의 대형불꽃과 레이저 조명, 웅장한 음악이 함께하는 테마형 축제로 세계최장 1km 나이가가라 폭포가 연출되고 하늘을 나는 불새 등 볼거리로 가득하다.

■ 부산비엔날레 2008



2008 부산비엔날레가 '남비'를 주제로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다. 11월15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과 광안리해수

욕장 등에서 펼쳐지며 40개국 190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회화와 사진, 영상, 설치, 야외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독특한 작가들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 세계사회의 체육대회



부산시는 9.26~10.2일까지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를 연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100여 개국 1만명의 선수와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 선수들은 3개 분야 18개 종목의 경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약하지?”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그렇다면 마늘에서 원액만 뽑아낸 통마늘진액!

초가을에 마신 마늘 겨울까지 간다!

“마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생마늘도, 구운마늘도 아닌 “마시는 마늘건강식품” 통마늘진액은 2005년 8월 출시 이래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재주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가 하면 감사편지와 이메일, 격려전화가 답지한다. 무엇이 통마늘진액에 열광케 하는걸까?

일제 무첨가, 오직 통마늘에서만 진액 뽑아 통마늘진액은 “마시는 마늘 건강식품”이기에 누구나 쉽게 많은 양의 마늘을 섭취할 수 있다. 제조공법도 과학적이다. 마늘을 청단설비에 투입, 8시간 동안 초음파공법으로 진액을 추출한 다음 완전 진공상태에서 다시 농축시킴으로써 맛있게 마시는 제품으로 탄생한다. 통마늘진액은 마늘 이외에 어떠한 원료도 첨가하지 않는다. 마늘원료는 명품으로 소문난 남해마늘만 100% 사용한다. 마늘 함유량도 놀랍다. 제품 한팩당 굵은 통마늘 12쪽에서 추출한 고농축 진액이 들어있다. 하루 3팩씩 마시면 마늘을 하루36쪽씩 먹는 셈. 1박스(60팩) 당 마늘 함유량은 720쪽 이상이다. 또한 마늘만 100%인데도 냄새도 매운맛도 없고 오히려 달콤하고 맛있다. 왜 그럴까? 완전진공 상태에서 농축하면서 냄새와 매운맛을



제거하고, 마늘 속에 들어있는 천연당분을 36%까지 추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통마늘진액을 선물하라! 마시는 마늘이기에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느끼도 빠른 통마늘진액을 마신 고객들은 이렇게 말한다. “마셔보니 정말 좋다!” 통마늘진액은 기업

1팩당 무려 12쪽의 마늘 함유!

◀통마늘진액의 열성팬 조영희팀장(천호식품 고객 상담실) 아이 이예림(4살). 아이에게도 통마늘진액을 마시게 한다고~ 아이도 좋아하는 통마늘진액,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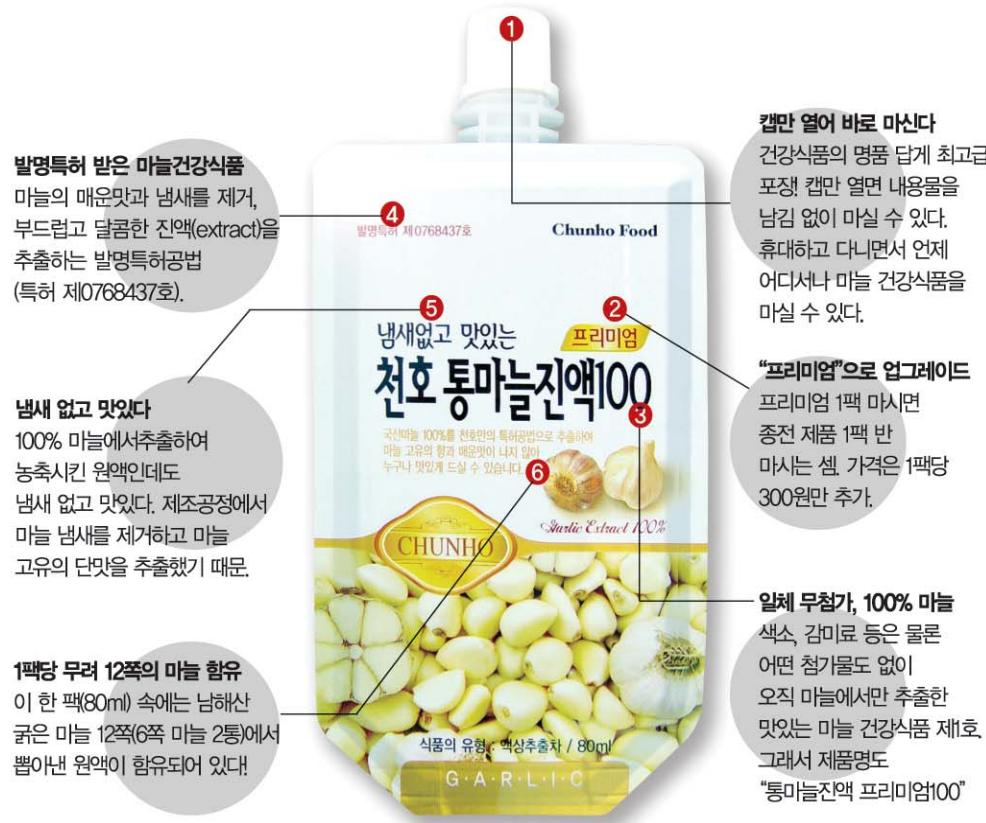
CEO, 예술인, 대학교수, 공부하는 학생, 가사일에 바쁜 주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에서 선택한다.



천호식품 MBC 수목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공식협찬 천호식품은 9월 10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MBC수목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를 공식협찬한다. 첫방송 17.1%(MBC미디어그룹)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본방송이 끝나고 예고편이 나오기 전 <천호통마늘진액> 스타팅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통마늘진액보다 더 값싸진 프리미엄 출시!

통마늘진액 프리미엄 1박스(80ml×60팩) ₩ 79,000 ※2박스 구입시 럭셔리한 비타민C(1,200mg×90정) 1통 증정 제품신청 무료전화 080.789.1005 본사 인터넷쇼핑몰 www.chunho.net 휴대폰 문자상담 010-5268-1005



발명특허 받은 마늘건강식품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제거, 부드럽고 달콤한 진액(extract)을 추출하는 발명특허공법 (특허 제0768437호).

냄새 없고 맛있다 100% 마늘에서추출하여 농축시킨 원액인데도 냄새 없고 맛있다. 제조공정에서 마늘 냄새를 제거하고 마늘 고유의 단맛을 추출했기 때문.

1팩당 무려 12쪽의 마늘 함유 이 한 팩(80ml) 속에는 남해산 굵은 마늘 12쪽(6쪽 마늘 2통)에서 뽑아낸 원액이 함유되어 있다!

캔만 열어 바로 마신다 건강식품의 명품 답게 최고급 포장 캔만 열어 내용물을 남김 없이 마실 수 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늘 건강식품을 마실 수 있다.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1팩 마시면 중전 제품 1팩 반 마시는 셈. 가격은 1팩당 300원만 추가.

일제 무첨가, 100% 마늘 설탕, 감미료 등은 물론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마늘에서만 추출한 맛있는 마늘 건강식품 제품. 그래서 제품명도 “통마늘진액 프리미엄100”